‘부산불교대상’ 설동근 前연합신도회장

‘지역불교 발전’ 공로… 시상식 5월 4일 시민공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제정한 ‘제1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로 설동근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사진〉이 선정됐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4월 22일 제1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를 이 같이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4일 오후 5시 부산시민공원 부산연등축제가 열리는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설동근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재가불자 지도자로서 부산불교지도자 포럼을 창립했으며, 불교 현안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포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와 제주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영령을 위로하는 데 힘썼으며 12~14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혁신위원장, 교과부 차관, 동명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우수상은 부산개인택시 법륜회와 삼광사 화엄합창단이 선정됐으며, 상금은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진여원(대표 남보타월)과 정서영 불자, 금강암 마야회가 선정됐다. 상금은 각 200만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봄꽃놀이, 진달래 화전과 즐겨요”

안동 봉정사,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화전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가 안동시의 ‘테마가 있는 관광 4월의 봄꽃 여행’ 편에 선정된 것을 기념, 진달래 화전 무료제공 행사를 펼쳤다.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는 4월 24일 봉정사 주차장 앞마당에서 전통음식인 진달래 화전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사진〉 봉정사는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매년 봄 진달래 꽃길이 펼쳐지는 봄꽃 명소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관람 후 영산암으로 올라가면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촬영장소이기도 한 오솔길이 나온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진달래 꽃길이 펼쳐져 봉정사의 한적한 봄을 색색으로 수놓는다.

한편 안동시는 매월 주제를 정해 ‘테마가 있는 관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1월 얼음축제, 2월 선비정신, 3월 독립운동에 이어 4월 관광 테마는 ‘봄꽃 여행’으로 선정됐다. 봉정사 외에는 △하회마을 △안동벚꽃축제 △신세동 벽화마을 △영호루 △도산서원 △안동민속촌 △온뜨레피움 △만휴정 등이 함께 선정됐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꾸준한 봉사, 지역사회 청소년 귀감”

갑룡장학회, 지역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4월 23일 진안 산약초타운 강당에서 ‘제6회 갑룡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초·중·고 및 대학생 37명에게 장학금 총 143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진안군 23개 자원봉사단체 및 협약기관이 추천했다.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기영 학생(제일고1)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다”며 “진안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달식에 앞서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세선터는 2021년까지 3년간 97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 세계 茶人 기장군서 화합”

(사)향기로운문화동행, 2019 국제차문화축제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4월 20일 개최한 ‘2019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에서 차인들이 허황후에 헌다하는 모습.

순백의 한복을 입은 100인의 차인이 차를 우려 두 손에 담아 높이 들었다. 이어 100인의 내빈들이 차례로 허황후에 차를 올리며 합장했다. 햇차가 익은 곡우(穀雨), 인도와 중국을 대표하는 차인들과 한국 차 문화의 대표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향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4월 20일 부산 기장 정관 중앙공원에서 ‘2019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기장차문화축제는 한국 제1호 차인인 허황후에 헌다례를 하고 차 정신을 세계인과 나누며 교류하는 자리로 매년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 규모가 더욱 커져 전국에서 찾은 차인들이 마련한 찻자리 55개가 열려 참가자 및 지역민을 반겼으며 6대 다류 찻자리도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다.

또한 국제차문화교류를 위해 인도 타타그룹 아쌈홍차를 관리하는 파털 쿠마르 보라(Parturl Kumar Bora)외 12명과 중국 자사호 대가 이능발 도예가가 방문해 차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어린이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됐다. 기장 리틀싱어즈의 공연에 이어 인도 어린이들의 전통춤 시연, 일희다회 어린이들의 행다도 펼쳐졌다. 특히 일희다회 어린이들은 직접 내린 차를 인도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인도·중국 등 각국 차인들
한국 문화교류에 관심 가져
6대 다류 찻자리 등 ‘눈길’
3000여 시민 몰려 행사 성황

행사는 이종순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선고 다인(茶人)과 선고문화인에 대한 묵념, 허황후 헌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차인들을 격려하는 문화시상식도 열렸다. 허황옥 차인상에 정영숙 부산여대 교수, 수로문화상에 황산요 이수백 도예가, 차성문학상에 김창식 시인이 선정됐으며, 동행복지기금 1000만원은 장재진 동명대 교수에게 전달됐다. 이외에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 및 체험 자리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어려운 경제와 혼란한 시기인 요즘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는 기장군민의 화합과 정신문화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허황후의 고향 인도 홍차 아쌈과 허황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왔다는 장군차가 오늘 만나 더 의미가 깊고, 전국 차인들이 차의 향연으로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축제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장차문화축제에 참석한 인도 팀 파털 쿠마르 보라(Parturl Kumar Bora)외 12명은 4월 21일 한국 전통사찰 장안사를 방문,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인도팀은 탑돌이, 대웅전 참배, 사찰음식 체험, 기와불사 등을 체험했으며 한국 불교문화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인도팀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양국 문화 소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 대표 전법도량 ‘대광명사 10년’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교육·포교·봉사 생활화”



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주지 목종 스님이 신도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안으로는 기도와 교육, 밖으로는 자비실천행을 펼치며 모범 포교도량으로 성장한 부산 대광명사가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4월 20일 대광명사 법당에서 ‘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시작 전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 “당신이 화신불”이라며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한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이 법당에 입장하자 신도들은 일어나 합장하고 그동안 이끌어준 스님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사부대중은 1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법회 시작을 알렸다.

육법공양에선 부부불자들이 나와 공양을 올렸으며, 10년 동안 이어온 발자취를 설명하는 영상 시청에 이어 신도들의 봉사활동을 치하하는 공로패 수여도 이어졌다. 공로패는 신익철 신도회장, 심영희·이윤희·박종후·송명지 불자가 수상했다. 대광명사에는 병원 포교, 독거노인 반찬봉사, 생명나눔 장기기증 활동 등 100여 명이 넘는 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봉사자를 대신해 대광명사는 5명에게 공로패를 시상하고, 법향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봉사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법회에서는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과 신익철 신도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주지 목종 스님의 법문, 합창단 축가가 진행됐다.

주지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 개원 기념법회를 할 때마다 주제는 ‘당신은 불보살의 화신이다’ 였다”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목적이 바로 당신이 불보살의 화신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신익철 신도회장은 “10년 동안 이어온 밝은 변화, 아름다운 변화는 가정과 사회를 더욱 밝게 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준 창건주 목종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성지는 성인이 태어나고 행원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며 “그런 의미로 돌아보면 도심 속의 성지는 바로 대광명사”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대광명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 신행, 기도, 봉사를 아우르는 가람을 이루고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큰 빛의 집’ 대광명사는 대광명전을 주법당으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한다. 직장인 및 어린이 등 세대별 맞춤 법회와 짜임새 있는 불교대학 운영으로 불자 양성에 앞장서왔다.

2009년 시작한 대광명불교대학은 현재 수료인원이 총 3091명이며 아향진, 진사실, 대원염불공양회, 사무량심, 소리장엄 합창단 등 각종 신행단체를 통해 지역 내 봉사활동, 바자회, 쌀 기증, 소외계층 복지기금조성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무료 49재와 추모위령재 등을 비롯해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유엔난민기구, 국경없는 의사회 등 구호 활동 지원에도 앞장섰다. 방송 매체포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전법도량, 조계종부산연합회 등 단체 활동에도 참가, 전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 서초동에 대광명사 서울법당 지금선원을 개원했으며, 앞으로 수도권 포교 활동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축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회주 두산 일면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
주지 선 도
총무 법 륜
신도회장 허일심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031)527-8345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 일 062-227-0173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